

20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 수립 연구

[ 최종 보고서 요약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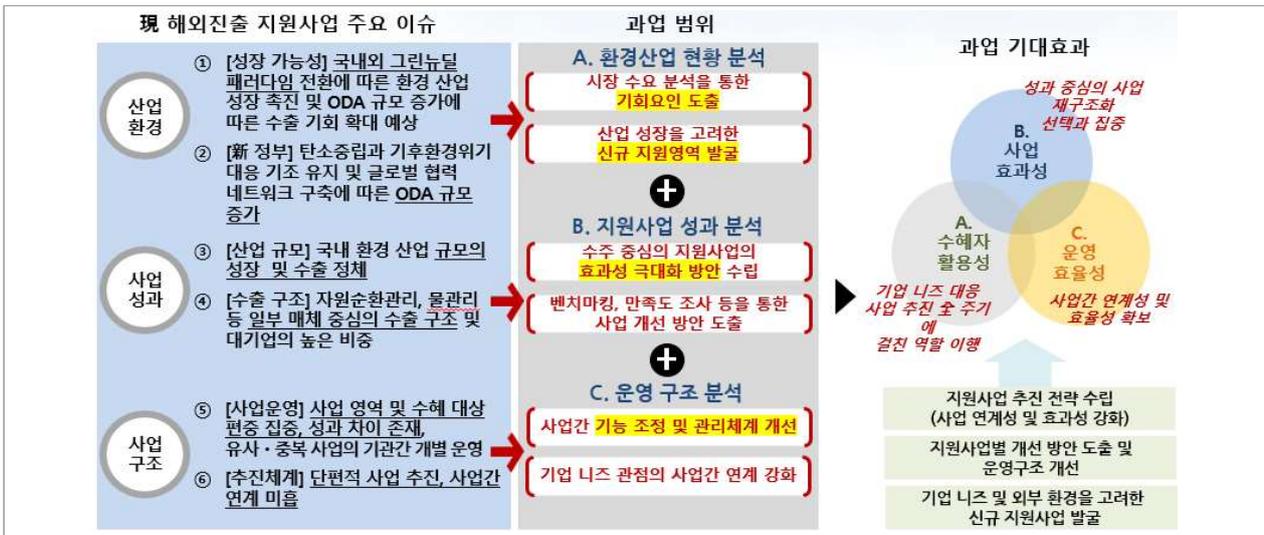
2022. 11.

# 1

## 과업 범위 및 추진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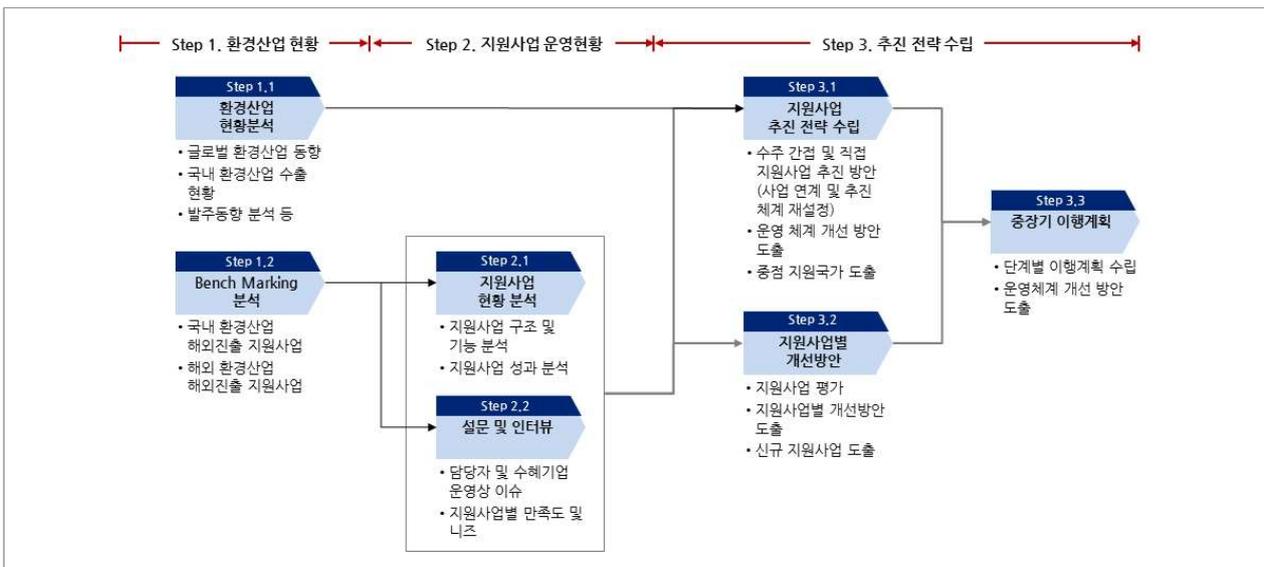
- 본 프로젝트는 환경산업 현황 분석 및 지원사업 성과와 운영구조 등의 분석을 통해 현 지원사업의 개선 및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및 수혜자 활용성, 운영 효율성 측면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I-1] 과업 범위 도출 및 기대효과



- 본 프로젝트의 추진 Framework은 다음과 같으며, 환경산업 현황 및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원사업 추진 전략 및 각 사업별 개선방안을 도출함

[그림 I-2] 프로젝트 추진 Framework



## □ 환경산업 동향분석

### ○ 거시환경 분석

- 글로벌 환경시장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 '13 ~ ' 19 CAGR 3.7%, '20 ~ ' 22 CAGR 1.2%)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대기( '20~22 CAGR 3.6%), 폐기물(3.5%), 신재생(6.2%)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짐
- 지역별 시장 규모에 대한 분석 결과 중남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으로 물, 폐기물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에너지 분야 비중이 높은 상황임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 에너지 분야 비중 평균 약 21%, 그 외 지역 약 6%)
-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의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과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 활성화 필요성 증가

### ○ 발주동향 분석

- MDB 투자 규모는 2020년 367억 달러 수준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 약 7% 이상 감소하였으며, 자원순환 및 중남미 중심의 아메리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EDCF의 경우 물관리 분야가 전체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도 및 폐기물 처리, 스마트그리드 등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주로 지원함
- 환경분야 ODA 규모는 ' 16년 이후 1.7% 가량 감소하였으며, 수자원 및 위생, 에너지, 환경보호 분야가 전체 규모의 약 50%를 차지함

### ○ 국내 환경산업 수출 동향

- 우리나라 환경산업 수출은 '14년 이후 정체가 두드러지며, 수출 지역 및 매체별 비중에 큰 변화가 없음
- 수출 지역은 중동, 동남아,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매체별로는 물관리, 자원순환관리 분야 비중이 약 70%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 지원사업 운영 현황 분석

### ○ 지원사업 성과 분석

- 지원사업을 활용한 지원 대상 및 수출 기업의 지속적 증가
- 기존 대기업, 플랜트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중견·중소기업, 소부장 및 제품 분야 수출 확대
- 동남아 및 동북아 중심에서 진출 국가 다변화에 기여

○ 지원사업 운영 현황 분석

- 서비스 대상, 추진 목적, 지원 내용의 유사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관별, 사업별 분리 운영
-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고 1개 사업 내 상이한 기능이 상존하는 지원사업 존재
- 평가와 관리 중심의 운영 구조 및 사업 개발 기능 미흡
-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간접 수출 경로와 최근 글로벌 수출, 수주 Trend에 대한 대응 미흡

○ 설문 및 인터뷰 분석 종합

- 장기적 측면의 기업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업 수출 역량 확보 필요
- 수출, 수주 관점의 지원 고도화 및 수주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집중과 후속사업 연계 활성화
- 기관의 G2G 관점의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수행상 애로사항 해결 지원
- 단순 비용 지원이 아닌 수주 관점의 지원 필요
- 행정처리 간소화 및 유연성 확보, 현 운영체계 고도화에 대한 니즈 존재

**3 現 지원사업 개선 및 신규 지원사업 도출**

□ 지원사업 개편 방안

- 지원사업 개편 방안은 기존의 지원기관(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기업) 및 수출, 수주 관점의 서비스 고도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그림 VI-1] 지원사업 개편 방안



□ 간접 지원사업 개선 방안 종합

- 간접 지원사업은 기업 니즈 대응과 운영 효율성 확보, 서비스 효과 확대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며, 지원사업 전문성 강화와 정체성 명확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효과 창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참고] 간접 지원사업별 개선 방안 종합

지원사업명	개선(안)
해외환경 통합정보 / 해외 유망환경 시장정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NETIC 내 정보 통합</li> <li>• 전문성, 기업 활용성 측면에 제공 정보 확대</li> <li>• 지원사업 정보 획득 및 단일화 된 창구로서 KONETIC 활용도 확대</li> </ul>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우처 방식 전환 검토</li> <li>• 기업 수요에 따라 자문분야 및 전문가 확대</li> </ul>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의 확대</li> <li>• 지원 후 후속관리 강화</li> </ul>
해외 발주처 초청 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인 서비스 확대 검토</li> </ul>
해외 환경시장 개척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정체성 및 전문성 강화</li> <li>- 네트워크 구축 및 수요 발굴 단계에 집중</li> </ul>
해외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인력 전문성 함양</li> <li>• 본원과 협업 확대를 통한 사업 효과성 증진 추구 및 직원 동기부여 확대</li> </ul>
공무원 석사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대상자와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li> </ul>

□ 직접 지원사업 개선 방안 종합

- 직접 지원사업은 서비스 정체성 및 핵심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해 도출되었으며, 다년도 사업 구조로의 전환 및 G2G 관점의 지원과 후속사업 연계 활성화, 기업 니즈 대응의 관점에서 이루어짐

[참고] 직접 지원사업별 개선 방안

지원사업명	개선(안)
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년도 사업 구조로 개선 (2년 이상) 및 추진 사업 범위 명확화</li> <li>• G2G 관점의 지원 확대</li> <li>• 후속사업 연계 활성화</li> </ul>
MDB, GC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년도 사업 구조로 개선 (2년 이상)</li> <li>• 종료 또는 1년차 진행 후 사업성 평가를 통해 후속 지원사업 연계</li> </ul>
F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금액 및 대상기업 확대검토</li> </ul>

지원사업명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CF, EDCF와 연계 검토</li> </ul>
국공현지화 / 적정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 후 사업분야 분리 (소부장, 인프라)</li> <li>적정기술 보급 지원사업 분야 제한을 통한 지원 대상의 차별화 추구</li> </ul>
벤더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벤더 등록 기능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더 등록 외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바이어 발굴, 제품 또는 상품의 현지화 현지 진출 지원</li> </ul> </li> </ul>

□ 신규 지원사업 도출

- 신규 지원사업 도출은 기업의 수출 경로 및 니즈, 환경 산업 Trend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도출되었으며, 중장기 관점의 기업 수출 역량 향상과 수주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이루어짐

[참고] 신규 지원사업 도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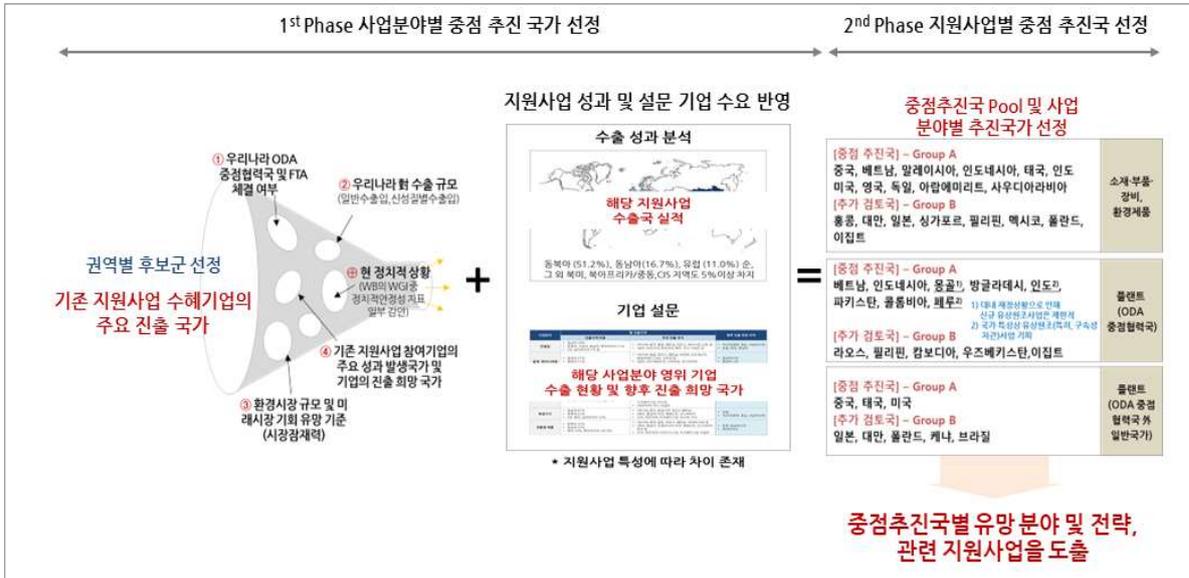
도출 관점	지원사업명	추진 방안	비고
기업 수출 경로 대응	중소기업 및 소부장, 환경제품 수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및 소부장 대상 네트워크 구축</li> </ul>	기존 지원사업 개선 또는 신규 지원사업화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ONETIC의 온라인 플랫폼 역할 검토</li> <li>- 환경 제품 판매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입</li> </ul>	직접 또는 타 기관 플랫폼 연계
	글로벌 스탠다드 역량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SG, SDGs 등에 대한 기업 대응 지원</li> </ul>	신규사업
기업 니즈 및 환경 Trend 기반 신규 지원사업	기업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진출 전담인력 육성</li> <li>우수 환경기업 수출 기반 구축</li> </ul>	
	수주 효과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 환경 프로젝트 수주 지원</li> </ul>	
	환경산업 트렌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원사업</li> </ul>	기존 사업 내 중점 추진 분야로 반영

**4 중점 추진국 도출**

□ 중점 추진국 선정 Framework

- 기존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성과(수출액 기준)가 많이 발생한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 ODA 중점협력국가 여부 등을 고려해 중점 추진국가 Pool을 도출한 뒤 주요 사업분야별 중점추진국가를 재선별하는 과정을 거침

[참고] 중점추진국가 선정 절차



□ 사업 분야별 중점 추진국 도출

- 사업분야에 따라 주요 해외진출 국가 및 니즈가 다른 점에 착안하여 사업분야별 중점 추진국가를 세분화하였으며, 이는 사업분야별 수출성과 및 기업니즈를 반영하여 도출함

[참고] 사업분야별 중점추진국가 세분화 결과

사업분야	국가
소재·부품·장비, 환경제품	<p><b>[중점 추진국] - Group A</b>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미국, 영국, 독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p> <p><b>[추가 검토국] - Group B</b> 홍콩, 대만,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멕시코, 폴란드, 이집트</p>
플랜트	<p><b>[중점 추진국] - Group A</b>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sup>1)</sup>, 방글라데시, 인도<sup>2)</sup>, 파키스탄, 콜롬비아, 페루<sup>2)</sup></p> <p><b>[추가 검토국] - Group B</b>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p> <p>1) 대내 재정상황으로 인해 신규 유상원조사사업은 제한적                  2) 국가 특성상 유상원조(특히, 구축성 차관)사업 기피</p>
	그 외 일반국가

- 사업분야별 중점추진국가 선정 결과 활용 시 유의할 부분은 몽골의 경우 2022년 현재 대내 재정상황으로 인해 신규 유상원조사업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무상원조 중심의 사업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인도, 페루의 경우 국가 특성상 유상원조(특히, 구축성 차관) 사업을 기피하는 국가적 특성이 있음을 감안한 사업발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